

Merck, 생명과학 젊은 인재 발굴

독일 Merck가 생명과학 분야의 젊은 인재 발굴에 나선다.

한국법인 머크 주식회사는 대한 생화학·분자생물학회와 함께 생명과학 분야의 젊고 유능한 과학자를 발굴하기 위해 <생명과학 연구자를 위한 머크 젊은 과학자상>을 제정했다고 9월17일 밝혔다.

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·개발 실적인 뛰어난 과학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며, 생명과학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역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젊은 과학자 상은 현재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, 일본, 말레이, 필리핀 등 Merck의 사업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.

대한 생화학·분자생물학회는 머크 젊은 과학자상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, 제 1회 수상자를 찾아 나섰다.

생명과학연구 전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테오믹스를 비롯 단백질 발현, 신호전달, 암 관련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젊은 과학자 상은 학회 포상위원회, Merck 그룹 본사와 한국법인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한 생화학·분자생물학회 운영회에서 함께 논의한 후 공정히 선발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9/09/17>